

지역사회 도서관과 연계한 영어 문식성 발달 지원 방안

Programs Supporting Students' English Literacy Development in Collaboration with Public Libraries: A Development of an English Reading Program

권혜경*, 장경숙**, 전영주***

에이원에듀연구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목원대학교***

Hyekyung Kwon(hkwonster@gmail.com)*, Kyungsuk Chang(kschang@kice.re.kr)**,
Youngjoo Jeon(ipeuni2@hanmail.net)***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에서 지역사회 공공 도서관과 연계하여 학생의 영어 문식성 발달을 지원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효율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내외 공공도서관 및 영어도서관 등에서 학생의 영어 문식성 발달을 지원해주고 있는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 및 사례 수집을 통해 그 효용성 및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내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학생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이뤄지는 영어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서 영어 문식성 발달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연유로 현행 지원 실태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영어 문식성 교육의 기회를 지역 사회의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공공도서관 | 영어 문식성 발달 | 지역사회 연계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measures to support students' English literacy development in collaboration with public libraries in the community. The literature review shows that students can improve their English literacy skills by not only reading authentic books, but also participating in English literacy programs at the public library. The analysis of the gathered data reveals that public libraries provide extensive programs customized to students' needs. It is also shown that reading programs at the public librar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students' literacy skills. With the analysis of the literacy programs at various libraries nationwide or abroad, we can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English literacy programs. Especially English Literacy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can be more effective to improve students' English literacy skills. It is suggested that we need to support children's literacy development in collaboration with public libraries in the community.

■ keyword : | Public Library | English Literacy Development | Community Collaboration |

I. 서론

독서교육은 넓은 의미로서 독서를 통하여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인성교육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인격형성을 위하여 독서하는 태도, 지식, 기술, 능력,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그 개발을 위한 지도를 의미하는 실천적 활동을 뜻한다[1].

우리나라 도서관법 제 28조에 명시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보면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 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 주최 또는 장려,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 상호대차,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그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2].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교육, 문화, 정보의 활력소이며 인간의 마음에 평화와 정신적인 행복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관임을 천명하고 모든 국가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 측면에서 볼 때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을 보완하는 지역의 학습장으로 학생 및 청소년에게 봉사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주민 이용자를 위해 평생 교육의 장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는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4][5].

외국어 교육 측면에서도 도서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학교 영어 교육에서 정규 교과과정만으로는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노출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여건을 고려할 때 도서관은 학생들의 영어 노출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몇 년간 영어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다양한 형태의 영어도서관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영어독서프로

램의 급격한 증가에 반해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영어 독서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방법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연계된 영어 문식성 발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국내의 공공도서관과 연계된 독서교육을 통한 문식성 발달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밀한 학생 수와 교실의 환경 부족으로 인해 개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 영어 도서관은 정규 영어 교과시간에 마무리되지 못한 학습을 스스로 보충, 심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줄 수 있다. 또한 단계별, 주제별로 갖춰진 다양한 장서뿐만 아니라 공공 영어도서관에 마련되어 있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 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정규교과과정에서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 개개인의 개별 맞춤 학습을 보완해줄 수 있다[6].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공공 영어도서관은 자원기반 학습(resource-based learning) 즉, 다양한 정보 자원의 활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체제로 학습 과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문제 해결력,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가능하도록 한다[6].

공공 영어도서관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한된 교육 환경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정보와 체험 그리고 협력을 통해 개별 학습, 모둠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교실 수업의 한계를 벗어나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의 원서를 선택하여 영어와 다른 과목의 교과별 통합 주제, 범교과 학습 등 도서관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실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학습의 장, 독서의 장,

문화 공간의 장 등으로 학습 환경의 장을 확대하여 사고의 폭과 경험을 넓힐 수 있으며 지식 전달 위주의 전통적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6].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특히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책을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영어 문식성(literacy)을 기초로 하여 영어 교육의 목표인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문식성(information literacy)은 정보가 요구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파악,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특히 지식 기반사회에서 리터러시란 지식을 습득하여 이해하고 기억하는 활동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다[7].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 수업이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정보 문식성도 부족한 실정이다[8].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방향을 언급하고자 할 때, 일방적인 지식 전수에서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 속에서 정보 자료를 탐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사조는 도서관의 철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9].

급변하는 사회, 기술적 환경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 왔고 교과서에 모두 담아 가르치고 배우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 다양한 학습 자료 속에서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가 된 것이다[10]. 이처럼 정보 문식성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업 성적 뿐 아니라 평생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므로, 공공도서관은 학습자의 정보 리터러시를 신장시킬 수 있다[6].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공도서관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연계된 영어 문식성 발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먼저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아동의 문식성 발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 지역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미국의 펜실바니아, 보스턴, 뉴욕, 시애틀과 캐나다 토론토의 공공도서관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 분석하여 각 도서관별로 차별화된 운영 자료를 추출하였다. 국내의 경우, 지역별공공도서관 연계 영어도서관 운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각 도서관 별로 물리적 자원, 프로그램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생의 영어문식성 발달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V. 분석 결과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동 독서교육 지원 활동 사례와 함께 국내 공공 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 교육 지원 활동과 영어독서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영어독서 프로그램이 향후 아동 및 청소년을 평생학습자로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문식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국외 어린이 공공도서관 운영

미국 도서협회에 따르면, 사서들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가능한 많은 아동들이 독자로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성취하도록 노력한다. 미국도서협회 통계에 따르면 94%의 도서관들이 아동들을 위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95%는 여름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며, 89%는 이야기 시간을, 83%가 학교들과 공동협력하고 있다 [11]. 지역별 특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사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펜실베이니아 공공도서관

펜실베이니아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유아/유치 대상 프로그램에 노출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초기 문식 행위(emergent literacy behaviors) 및 사전 읽기 기술(prereading skills)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12]. 여름 독서 프로그램의 목적은 독서 기술이 감소하는 여름 방학 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을 방문하게 하는 것인데 그 결과 많은 수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조사된 펜실베이니아 도서관들 중 삼분의 일 이상은 매 여름마다 여름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의 도서관들은 여름독서 프로그램동안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75%는 여름독서프로그램 기간 동안 6% ~ 10% 사이의 대여 대출이 많은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된 거의 모든 펜실베이니아 도서관들(94%)은 이야기 시간과 같은 영유아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고 한다. 또한 25%의 도서관들은 매주 적어도 50명의 미취학아동들이 방문한다고 한다. 취학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타임과 같은 조기 읽기 환경 조성이 아동들의 읽기 능력 향상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한다.

1.2 보스턴 지역의 공공도서관

보스턴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아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도서관 대출의 50% 이상을 아동 도서들이 차지하고 있다.
- 도서관 활동은 지역 내 관련분야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개인의 광범위한 요구와 흥미에 맞게 전문적인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다.

-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출생에서부터 아동기까지 연령별로 세분화되어 성장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 각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어린이 도서실 사서와 각 학교의 사서 및 교사 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돋보였다. 그들은 함께 권장 도서 목록을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었다.
- 도서관이 아동들을 위한 휴식 공간, 가구 배치, 조명, 간단한 아동들의 작품이나 소품이 전시되어 있는 선반, 코너 등으로 아동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배려가 아동 중심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 그들 자녀의 교육을 대부분 학교, 캠프, 도서관의 아동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서관에서도 아동들에게 수동적으로 도서 대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다[13].

1.3 뉴욕주립도서관과 학교를 연결한 프로젝트

뉴욕에서는 자녀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학교와 가정, 지역 커뮤니티가 연대하여 실시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전체의 교육 거점으로서 공공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1991년 뉴욕시 전체에서 시작된 ‘도서관과 학교를 연결한다’는 프로젝트가 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뉴욕의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협력 관계 강화에 있다.

이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먼저, 여름 독서 프로그램이다. 뉴욕주립도서관은 매년 여름 뉴욕 주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름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각 학교의 교장 및 사서교사들은 공공도서관의 사서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력하여 이 여름독서프로그램의 홍보와 성공에 힘써며 1백 만 명의 어린이를 참여시킬 목적으로 1999년 172,000명의 참가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1,038,484명이 참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14]. 뉴욕주립주도서관은 매년 뉴욕 주 내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한 곳을 지정하여 아동서비스사서위원회와 함께 파트너십을 조성, 그 해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많은

아동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들이 실린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하는데 이 매뉴얼은 뉴욕 주의 1,200개 공공도서관들과 그 지부들, 그리고 독서센터 등에 무료로 배부되어 아무리 작은 도서관이나 멀리 떨어진 도서관이라도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독서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15].

1.4 시애틀 지역 공공도서관

1.4.1 시애틀 공공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은 미국 시애틀시가 모든 사람을 위한 도서관(library for all)이라는 목표 아래 시애틀 정부와 기업, 시민들의 힘이 보태져 만들어진 도서관이다. 1층에 마련된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이라기보다 큰 놀이방과 같다. 도서관 측에서는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끌어오기 위해 컴퓨터, 입체북, 다양한 프로그램, 심지어 게임기까지 갖춰놓고 있다.

1.4.2 노스 이스트 브랜치 도서관

이 도서관은 시애틀 중앙도서관 27개 지역 도서관 중 하나이다. 1945년 지역주민자치회에서 도서관 만들기 모금운동을 펼쳐 조성된 기금으로 1945년 12월 도서관 문을 열었다. 당시에는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문서와 장비를 대여 받아 임시로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였는데 이후 이용자가 많아지자 시의원들이 1953년 시의 예산을 들여 노스 이스트 브랜치 도서관을 정식 오픈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2004년 모든 사람을 위한 도서관 프로젝트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게 된 것이다. 이 도서관에서는 스토리텔링, 컴퓨터교실, 중국어교실, 스페인어교실, 심지어는 시민권을 얻는 방법에 대한 교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1.5 캐나다 토론토 공공도서관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토론토시교육위원회에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도서관 자원 및 기술'이라는 부서가 있다. 이 부서는 2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문은 자료를 수집하고 목록과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곳이고, 다른 한 부문은 자료평가, 선택을 담당하는 곳이다.

먼저, 목록과 데이터베이스 작성에서는 목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토론토교육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학교의 도서관이 입수하는 자료를 일괄 매입하고, 이를 목록화한 후에 학교에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직원은 부서장 1인, 수서와 배분에 7인, 목록담당 2인, 비상근 목록담당 6인, 데이터처리담당 2인이 소속되어 있다. 부서장과 목록담당 등 3인은 사서자격을 가지고 있다. 토론토교육위원회 소속 학교도서관들은 자료의 매입을 교육위원회를 통해 하게 되고 매입된 자료는 이 부서에서 분류, 정리하여 학교도서관에 보내준다[16].

이 목록은 학교도서관의 사서들에게 전달되어 도서관 장서구성에 활용된다. 검토가 된 자료는 교육위원회 서가에 비치해두고 사서교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17].

2. 국내 공공도서관의 영어 독서 교육 지원 활동 사례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영어 독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공공도서관 혹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부, 지자체 혹은 교육청 특별 예산 지원을 받아 서울을 포함 대도시 중심으로 영어도서관이 여러 곳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은영(2011)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징적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영어도서관 구축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6].

2.1 광주 어린이 영어도서관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내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의 근간이 되고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0년 1월에 광주학생교육회관의 시설 일부를 어린이 영어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1:1로 투자한 7억 원의 예산으로 도서열람실, 스카이라운지, 스토리룸 2곳, 다목적실, 수업준비실 등을 마련하였다. 보유 자료는 영어동화책, 참고도서, 미국 교과서, 리소스북, DVD 등 27,262점의 다양한 자료와 전자책,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 등 최첨단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수준별 동화책 읽기 과정의

경우 초, 중, 고급의 3단계로 나뉘어 파닉스(Phonics) 지도와 함께 단계별 읽기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영어 독서 캠프를 1년에 2회 실시하여 동화책 읽기, 스토리텔링, 영어 드라마 등의 다양한 독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오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방과 후에 진행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이용이 적은 오전 시간에는 취학 전 아이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학부모와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2.2 대전 동구 평생학습센터 영어도서관

대전 동구 평생학습센터 영어도서관은 대전시 동구가 2010년 9월에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양도서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영어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열람실, 강의실 2개소, 유아실, 가조실 등을 조성했다. 도서관 내 열람실에서 도서,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유아실에서는 가족 독서, 스토리텔링, DVD 시청 등이 가능하다. 또한 가족실에서 영화감상이 가능하다. 다양한 종류의 영어도서관 11,908권, 영어 관련 CD, DVD 868점, 수업용 교재 68점 등 각종 디지털 자료와 교구, 수준별 독서를 위한 독서 능력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스토리텔링과 수준별 동화책 읽기 등 읽기 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유아부터 초등학생 대상의 알파벳, 초급 영어, 중급 영어, 원어민 회화, 영어 동화읽기, 영어 동요, 스토리텔링 등 총 7개 과정의 9개 강좌를 처음에는 운영하였으나 이후 영어강좌, 스토리텔링, 영화 감상 등 4개의 강좌만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2.3 서울 서초구 영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2009년까지 관내를 4대 권역별로 나누어 영어몰입 복합 센터인 English Premier Center를 설치하여 영어 통용 글로벌 도시의 조성을 목표로 영어도서관을 통해 영어마을식 체험학습을 결합한 영어 학습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서초구청이 교육 계획을 세우고, 사설 영어교육 전문업체가 영어센터를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운영

면에서 사설 영어교육업체에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18].

서초구를 권역별로 4군데(서초, 반포, 방배, 양재)로 나누 각 권역별로 위탁 업체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설 학원에 비해 저렴한 수강료를 받고 있다. 독서 전 이해력 수준 측정과 독서 이해력 테스트를 위해 독서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은 영어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파닉스, 영어 회화, 쓰기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센터를 접목한다는 방침 아래, 영어 도서를 읽고 토론하고 작문하는 수업을 병행하며, 수준에 따라 신문을 활용한 수업도 진행한다. 각 권역별 센터는 위탁업체의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4 부산 영어도서관

2009년 7월에 개관한 부산광역시립 중앙도서관 분관 부산영어도서관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협력하여 건립하고 전국 최초로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다. 부산영어도서관은 부산광역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영어체험시설인 부산글로벌빌리지 행정동 5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목적은 영어 체험학습센터인 부산글로벌빌리지와 도서관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과 초, 중, 고등학생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영어 읽기 자료 비치 활용, 평생교육의 형태로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이자 저비용, 고효율의 영어교육센터, 영어교사 연수 협력기관 역할, 단위학교 및 기초 자치 단체 영어전용도서관 모델 역할이다[19].

기존의 개성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였고 모든 연령층의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 출입구를 시작으로 수준별, 연령대별로 열람실을 배치하였고 서가와 북카페가 일체형으로 다양한 색깔로 공간을 조성하였다. 내부시설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영어그림책, 동화책, 논픽션, 참고도서, 교과서, 소그룹 수업용 교재, 코믹북 등으로 구성된 28,392권의 도서 자료와 그 밖의 전자도서를 포함 비도서 자료를 갖추고 있는데 특히 22,169권의 장서를 수준별 Lexile 지수별로 분류하여 유아,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일반인에 이르

기까지 수준에 맞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 위탁 운영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독서 능력 진단검사, 독서이해도 테스트라는 컴퓨터 기반 독서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주로 학교와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은 읽기를 중심으로 말하기, 쓰기 등 다른 언어 영역을 연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월별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앞서 살펴본 국내 영어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물리적 자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6]. 첫째, 4개의 영어도서관 모두, 독서를 열람, 대여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영어학습센터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여 지역 아동 및 주민에게 영어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있다. 주요 인적 구성은 영어 능력이 갖춰진 전문 인력, 사서, 원어민 강사 등이며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도서관, 학교 등 공공기관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신축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부담을 줄였다. 장서 배열시 대체로 수준별 Lexile 지수를 활용하고 있었다. Lexile 지수별로만 독서를 비치하는 곳도 있고, 주제별로 배열은 하지만, Lexile 지수를 함께 부착해 이용자가 수준별로 독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 도서관에서 책 대여가 무료이고 활동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 또는 교재비만 부담하였다. 그러나 서초구 영어센터는 저렴하기는 하나, 책 대여와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고 있었다. 서초구 영어센터는 프로그램을 사설 영어교육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도서관은 교육청, 지자체(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의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문식성 발달은 물론 영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

다. 그런 점에서 공공도서관은 물론, 어린이도서관, 지자체 영어도서관, 학교도서관이 서로 협력하여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향후 보다 효율적인 영어독서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올바른 인식을 이끌어 내어 공공도서관 혹은 어린이도서관, 영어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사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보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도서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가 입증될 경우에는 이것을 다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타 기관과도 서로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과 책 읽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향후 올바른 독서습관을 갖게 될 수 있어야겠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영어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준 및 주제별 도서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국내 학습자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독서를 수준 및 주제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도서 기준을 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현재 미국에서 개발된 Reading Level(RL), Guided Reading Levels(GRL), Lexile Framework for Reading Levels(LEXILE)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조정이 필요하다[20].

둘째, 다양한 영어독서 프로그램 및 평가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한국 정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어 독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셋째, 영어독서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영어독서는 영어그림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성장함에 따라 영어독서 수준도 성장하는 것이므로 그에 적합한 독서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어독서지도자는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특히 영어독서지도자 스스로 영어독서를 해보지 않고서는 그 가치를 알 수 없고 오래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과정을 꾸준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과정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또한 이뤄져야 한다.

넷째, 영어 의사소통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공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제 발화를 통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굳이 해외로 유학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영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영어독서를 기반으로 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야 한다. 다양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다방면에서 영어발화의 기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영어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근래 도서관은 단순히 독서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곳 이라기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내 영어도서관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영어독서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현재 영어독서 교육활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등 관련 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주로 외부 인력 및 민간 자원봉사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스토리텔링 및 독후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후 관련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후원은 물론 자체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여 점차 기관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때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 및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황금숙, *독서 교육의 방법,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태일사, 2002.
- [2] <http://www.klaw.go.kr>
- [3] 현규섭,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의 개정과 의의”, *도서관문화*, 제37권, 제2호, pp.76-77, 1999.
- [4] 정진주, “일본 사례연구를 통한 공공도서관의 자동화 출판서가시스템 도입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5호, pp.237-245, 2008.
- [5] 최성락, 황혜신, 차성중,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해외 사례 비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0호, pp.274-285, 2011.
- [6] 여은영, *공공영어도서관의 운영실태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7] 이보석, *도서관 정보활용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및 정보 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8] 정사라, *국내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의 현황과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9] 백미자, *도서관활용수업이 사회과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10] 송기호, *학교도서관 교육의 실제*, 한국도서관협회, 2006.
- [11] <http://www.ala.org>
- [12] C. Celano and S. Neuman,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children's literacy development*. Pennsylvania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ommonwealth Libraries, 2001.
- [13] 임형빈, “아동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 pp.393-414, 2004.
- [14] 스가야 아키코,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지식여행*, 2004.
- [15] 이동연, *지역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 연계방안*, 서울: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 2003.
- [16] 윤남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천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17] 한윤옥,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 강화를 위한 실증적 사례 분석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 [18] 조경희, *학교영어도서관을 활용한 확장형 읽기 접근방식의 적용 사례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19] <http://www.bel.go.kr>
- [20] <http://www.lexile.com>

저 자 소 개

권혜경(Hyekyung Kwon)

정회원



- 2006년 8월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기영어교육 졸업(석사)
- 2009년 3월 ~ 현재 : 송실사이버대 출강/권혜경영어도서관연구소(englishlibrary.co.kr)
- 2010년 4월 ~ 현재 : 에이원에듀 연구소장, 리딩게이트(이러닝영어독서프로그램 및 단계별 영어전자책) 책임개발

<관심분야> : 영어독서교육, 다독, 영어독서지도자 양성

장경숙(Kyungsuk Chang)

정회원



- 1996년 3월 : 맨체스터 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박사)
- 2002년 7월 ~ 현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2013년 1월 ~ 현재 : 한국외국어교육학회 부회장

<관심분야> : 교사연수, 교육과정, 언어정책, 교재개발

전영주(Youngjoo Jeon)

종신회원



- 2010년 4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 2013년 1월 ~ 현재 : 한국외국어교육학회/KOTESOL 부회장
- 2014년 1월 ~ 현재 : 한국영어다독학회(keera.or.kr) 부회장

<관심분야> : 영어교수법, 다독, 영어수업관찰, 스마트 영어교육